

서평

『70년 만의 귀향』

도노히라 요시히코(2021). 후마니타스.

이영재 _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어떤 책인가?

『70년 만의 귀향』은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귀향(歸鄉) 이야기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조선인 115명의 유골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2015년 9월 11일 홋카이도(北海道) 후카가와시 일승사(이치조지)에서 시작된 귀향 여정은 9월 14일 도쿄 → 교토(15일) → 히로시마(16일) → 시모노세키(17일)를 거쳐 부산(18일)에 도착했다. 70여 년 전 조선인 노동자들이 징용, 모집, 알선 등의 명목으로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끌려가 시모노세키를 거쳐 홋카이도로 갔던 길을 정반대로 되짚어 돌아왔다.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데 자그마치 70년이 걸렸다. 고국 땅을 밟은 유골은 혼간지 삿포로 별원에 합골된 유골 중 한국 출신자 분 71구, 비바이 탄광 주변 죠코지(常光寺)에 안치된 유골 6구, 슈마리나이 우류댐 건설공사 희생자 발굴 유골 중 4구, 아사지노 일본 육군 비행장 건



〈사진 1〉 2010년 유골 발굴 현장 (© 자상)

설 희생자 발굴 유골 34구로 총 115구다.

저자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는 자신을 일본 최초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홋카이도로 이민 온 “식민 지배인의 자손”이라고 소개한다.¹⁾ 요시히코는 전쟁 직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이어 절을 물려받고 승려가 되었으며, 장례를 집전하며 망자를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1974년 봄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절로 돌아와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시도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197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홋카이도 각지에

1) 홋카이도는 도쿠가와 막부 체제하에서는 이역(異域), 즉 외국으로 취급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최초 식민지 대상이 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나라’ 홋카이도이다(『귀향』_7). 이 글에서 『70년 만의 귀향』 인용은 (『귀향』_페이지)로 한다.

서 전쟁 중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 희생자와 다코베야²⁾ 노동자의 유골을 발굴해 왔다(『귀향』_8-12).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은 일본열도 북쪽 끝에 위치한 홋카이도이다. 묘하게 홋카이도는 일본이 한반도에 저지른 만행의 증거들로 자주 조명된다. 일제 강제노동 훨씬 이전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유골이 신문지에 쌓여 종이박스에 넣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1995년 7월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대학 한 인류학자 연구실에서 발견되었다(나카츠카 외 2014, 11).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쫓겨 사망한 후 수집 대상이 되어서 일본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홋카이도대학측이 관련 연구자들을 통해 성의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한국은 그 보고서와 더불어 방치되었던 유골을 다시 한국에 모셨다. 그러나 홋카이도대학에서 반환해 온 동학농민군 유골은 한국으로 돌아왔어도 너무 오래되어 후손을 특정할 수 없어 아직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70년 만의 귀향』에 등장하는 유골들과는 정반대 신세다. 한국인 강제노동자 유골은 오랜 노력 끝에 한국에 있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족들이 홋카이도까지 오기도 했지만 그 사이 유골이 합사되어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반면 동학농민군 유골은 한국으로 되돌아왔지만 유족을 특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2) 광산 노동자나 공사 인부들이 생활하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합숙소를 의미한다. 이 말은 다코베야 노동자가 항아리에 들어간 문어(다코)가 자기 힘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 결국 자신의 발가락을 먹는 모습과 비슷한 데서 유래했다(『귀향』_12).

2. 삭제된 기억, 유골이 전하는 말

이 책은 일본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주검에 대한 세계시민적 관점의 성찰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필자가 유골발굴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발굴 현장의 긴장감이 차분하게 전해져 온다. 저자 요시히코와 70년 만의 귀향을 이루기 위해 동참한 이들의 실천이 전하는 울림이 크다. ‘70년 만의 귀향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정작 115구의 유골을 서울로 봉환한 것은 한일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청년·학생들이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전반의 현황을 보여주거나 외교적 해법을 제안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무미건조한 통계의 나열 대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의 나열 대신 이 책은 ‘삭제된 기억’의 복원을 위한 시민의 분투와 이역만리 일본 최북단까지 끌려와서 죽음을 맞은 이들에 대한 인간적 사랑으로 가득하다. 고국이 강점된 망자들에 인간적 예의를 갖추는 이들이 전하는 죽음의 의미다.

육친이나 사랑하는 이의 추도를 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망자의 죽음은 중단된 채 멈춰 있는 것이다. 가족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추도하지도 못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은 망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귀향』 11).

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망자는 얼마나 될까?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에 의해 양산된 아시아 희생자는 2000만 명으로 추정된다(『귀향』_11). 참고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내외에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780만 4,376명(1인당 중복 동원을 포함한 수치)이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강제동원 되었다(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6, 135).

1) 삭제된 기억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상황이 맞지 않아 실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995년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지 50년 되는 해였다. 근대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역사 인식을 보여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해 6월 9일 일본 국회는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주었던 고통을 인식하여 깊은 반성의 염(念)을 표명한다”고 결의했지만 정부는 달랐다.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한 것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했던 ‘세계 근대사에 있었던 수많은 식민지·지배·침략 행위’와 같은 것으로써, 일본만 특별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였다(나카츠카 2014, 228-229).

일본인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전후를 시작했다. 일본은 8월 15일을 ‘종전’이라고는 해도 ‘패전’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에서 졌다는 마음은 갖지 않으려 한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대신 야스쿠니신사 국영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귀향』_54). 요시히코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본 정부에 의한 “기억의 삭제”라고 표현한다. 요시히코는 삭제된 기억들의 이면을 들추고 삭제된 것이 무엇인지 지목한다. 삭제된 것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다. 그리고 망자의 유골은 삭제된 기억을 일깨우는 존재다.

유골은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는 사자(使者)로 땅속에서 등장한다. 발굴된 유골은 전후 일본인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며, 시신 세구가 겹친 채 발굴된 상태는 망각한 과거를 말없이 증언한다(『귀향』_42).

2) 유골이 전하는 실상

지난 2019년 이영훈, 이우연 등 일군의 친일 극우 인사들이 『반일종족주의』(미래사)를 출간하고, 국제회의에 가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이우연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작업하는데, 조선인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황당한 이야기이고 근로환경에 있어서 민족차별이라는 주장은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했다(이우연 2019, 82-85). 이 책은 이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 실체로 보여준다. 요시히코와 함께 민중사를 공부하는 핫카이드 지역 시민들이 인터뷰한 내용 중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재일코리안 이 씨의 증언이다.

새벽 3시부터 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 날이 갈수록 영양실조에 걸린 사

람이 늘어났지만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 쇠 지렛대로 두들겨 맞아 그대로 땡벌 아래 연못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히면 맞아 죽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 것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귀향』_21).

1976년 가을 요시히코는 슈마리나이 제2공구에서 일했던 박남칠 씨를 만났다. 박남칠 씨는 이우연이 주장하는 ‘자유노동자’ 즉 ‘신용인부’였다. 그 증언을 보자.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제2공구였어요. 현장 식당이 세 곳이었고 제가 들어간 현장은 50명 정도 있었지요. 저는 신용인부(信用人夫)³⁾였지만 옆방과의 사이에 합판 한 장으로 벽이 쳐져 있는 곳에 묵었어요. …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매일매일 단무지와 된장국이어서 지금도 그런 것은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못 먹는 것이었어요.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지요. … 숲에 있는 머위와 풀도 먹었어요(『귀향』_149).

박남칠 씨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다. 합판으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합판 너머 다코베야 동포와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나날이 약해졌다. 어느 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참 지난

3) 빚을 지거나 강제로 끌려오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인부.

어느 날 다코베야가 없어지고 합판을 헐었는데 그 합판 구석에 한국어로 자식과 아내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라고 적혀 있었다(『귀향』_151). 박남칠 씨는 유골 발굴을 같이하고 2008년 10월 운명할 때까지 30년 남짓 소라치 민증사강좌 운동에 빠지지 않고 함께 했다. 조선인과 중국인 등에 대한 강제연행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일본 젊은이들을 징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내와 점령지 등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실시한 전시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박남칠 씨처럼 강제연행을 피해 아는 사람을 통해 홋카이도에 온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을 해보니 말로만 자유 인부였을 뿐 실제로는 강제노동이었던 것이다(『귀향』_151).

2010년 5월 1일 구 일본 육군 아사지노 비행장 건설 강제 연행 희생자 제3차 유골 발굴이 있었다. 앞선 2차 발굴로 이미 유골 20구를 발굴한 곳이다. 3차 발굴 중 구덩이에 겹쳐져 있는 유골이 세 구가 발견되었다. 유골은 30대 전반과 40대로 추정되는 남자 유골로 판명되었다(충북대학교 형질 인류학자 박선주 교수 감정). 유골은 등뼈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고 뼈에 못이 박혀 있었다. 비인도적으로 매장된 것이다(『귀향』_18-20). 우리는 이 책에서 망자가 최후의 몸짓으로 남긴 그 이야기들을 마주한다. 발굴한 유골 앞에서 저자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노동을 강요당했을까.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무얼까. 사고사일까, 병사일까, 영양실조일까.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왜 시신 세 구가 겹쳐서 조잡하게 파낸 구덩이에 묻혔을까. 왜 몸에 못이 박힌 상태로 난폭하게

매장되었을까. 이 일들을 가능한 한 조사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닐까(『귀향』_39-40).

책을 읽는 내내 유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전해오는 저자의 인간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3) 삭제된 기억을 잇는 유골, 그 기억을 더듬는 인간애

「2007년 아사지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사지노 비행장 건설에서 희생된 것으로 밝혀진 노동자는 118명이 넘는다. 조선인 96명, 일본인 21명, 국적불명자 1명이었다. 수습할 사람이 없는 조선인 강제 연행 희생자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돌보는 이 없는 망자들의 무덤이 없어지고 산림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가문비나무가 심어져 있고 사유지가 되었다. 아사지노 사람들은 조선인 희생자 유골이 옛날 공동묘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귀향』_24-26). 저자의 주선으로 한국 정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사지노 비행장 건설에서 사망한 희생자 유족을 찾았고 다섯 명의 유족이 부친이 죽은 장소를 직접 방문했다. 유골이 된 망자들에게 지난 시간은 어땠을까? 저자의 답이다. “연행되고 혹사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땅속에 방치된 채 오래도록 무시당한 시간이었다. 일본의 전쟁과 식민 지배가 가져온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사루후쓰촌 아사지노의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은 2005년에 시작해 2006년, 2009년, 2010

년까지 총 네 차례 이루어졌다. 네 차례 발굴에서 발견한 유골이 39구였다. 전후 60년이 지난 홑카이도 산속에서 삽질을 하면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이 나왔다. 허술하게 매장된 유골은 짐승이 파헤치기도 하고 노출된 채 방치되었던 것이다(『귀향』_38-39).

유골이 삭제된 기억을 잇는다. “유골을 통해 가슴 벅찬 관계가 새롭게 성립한다. 그것은 망자가 쥐어 준 인연이며, 발굴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발굴된 유골의 삶으로도 이어진다. 망자와 살아 있는 사람이 이어진다.” 발굴은 땅속에서 나온 유골을 눈앞에서 만나는 의식이다. 이는 유골이 지탱해 온 삶과 대면하는 체험이다. 저자는 승려로서 이를 ‘업보의 자각’으로 표현한다(『귀향』_44-45).

땅속에서 인간의 매·화장 유골이 나오면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슈마리나이 희생자 유골 발굴 현장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유골이 꺼림칙하다며 손대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발굴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다.

얼음이 녹아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는 땅속을 파내다가 유골이 만져졌을 때 웬지 사람들은 그 유골이 자신을 꺼내 주기를, 발굴하는 사람의 손에 닿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느낀다. 참 희한한 감정이다. 유골을 사이에 두고 희생된 몸숨과 자신이 연결됨을 느낀다(『귀향』_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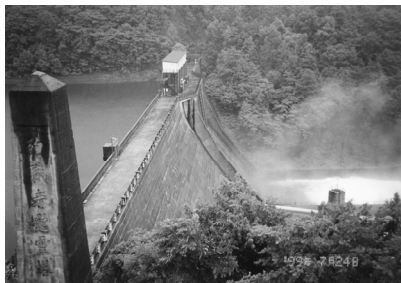
3. 슈마리나이 댐의 순직자들

슈마리나이댐 인근에 20미터 높이의 철골 계단 위에 전망대가 있고 그 옆에 제방과 나란히 10미터 높이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비가 서 있다. 그 비가 우류전력주식회사 사장 아다치 다다시가 쓴 순직자 위령탑이다. 위령탑의 ‘순직자’는 누구일까? 슈마리나이 댐에서 1km 인근에 광현사라는 절이 있다. 1960년대까지는 주지가 있는 절이었지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신도 몇 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절이다. 이 절에 1931년부터 15년간 계속된 아시아태평양 전쟁 속 망자들의 위패가 80개 남짓 보관되어 있다. 조선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댐 전망대 옆 위령탑의 순직자들이란 바로 전쟁 때 건설한 댐 공사의 희생자들이다. 1938년 착공한 우류댐과 메이우선 철도 공사는 공기가 겹쳐 있었고, 공사 현장도 가깝고 하청 회사도 도비시마였다. 양쪽 공사현장의 희생자 위패가 광현사에 봉안되어 있다(『귀향』_88-93).

이들 ‘순직자’는 대부분 다코 노동자들이다. 다코베야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구타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노동 때문이었다.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먹는 것도 적게 주고 빨간 광목천 속옷(훈도시) 하나만 입혀 일을 시켰다. 아이들을 겁주는 말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다코 노동자가 된다’는 말이 있었다. 정작 많은 다코 노동자들은 속아서 끌려온 경우가 태반이었다. 다코 노동자들이 사망하면 매장 당했다. 인도자(유족)가 나타나지 않는 한 화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코 노동자는 신분을 숨기고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망해도 유족이 인도하러 오는 것 자체



〈사진 2〉 1940년 슈마리나이댐 공사 현장
(©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



〈사진 3〉 순직자 위령탑과 슈마리나이댐
(©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

가 불가능했다. 많은 다코 노동자 시신이 땅속에 묻혔다. 희생자가 속출했는데, 사인은 ‘각기 충심’이 많았다고 한다. 영양실조로 각기병에 걸리고 심근장애를 일으켜 심부전에 이른 것이다. 저자는 광현사에 남겨진 순직자들의 과거장과 매·화장 인허증을 조사해 1937년부터 1943년까지 7년간 100구 이상의 시신이 광현사에 안치된 것을 알아냈다. 댐 공사 전성기인 1939년에는 27명, 1940년에는 28명의 시신이 안치되었다. 모두 다코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시신이었다(『귀향』_95-109).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각기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방에서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현장에 끌고 갔습니다. 초봄 조릿대 덩굴 속에서 백골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인 묘지에는 비석이 있었지만 조선인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귀향』_154).

댐 공사 당시 슈마리나에서 우편배달을 하던 오쓰미 쓰토무 씨의 증언이다. 조선인들의 유골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에 더 가슴이 아프다.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편지

1) 수신인을 망자(亡者)로 한 편지

저자가 매·화장 인허증을 통해 조선인 희생자 15명의 이름을 확인한 시점에 한국은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인이 한국에 가서 유족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언제 간첩단 사건으로 엮일지 장담할 수 없는 유신시대였다. 1980년에는 슈마리나이 공동묘지에서 발굴이 시작됐다. 한국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12월 12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1980년 5월 광주에 참상이 벌어지던 시점이다. 유골은 확인했지만 유족을 찾을 길이 없던 저자가 가장 아름답고 슬픈 편지를 한국으로 띄운다. 수신인은 망자다. 1977년 2월 18일 조선인 희생자 15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14명 앞으로 후카가와 우체국에서 ‘망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송되었다. 놀랍게도 1977년 3월 7통의 답신이 도착했다.

전후 일본 정부와 강제 연행을 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유골을 조사하거나 반환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므로 일본에 조선인 희생자 유골이 남아 있

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망자의 한국 주소로 편지를 보내 유족에게 희생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에 매장된 한국인의 유골을 고국과 연결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일조약이 체결되고 12년 만의 일이었다. 유족은 그동안 일본 정부나 연행한 기업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사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국에서 살아왔다(『귀향』_119-124). 저자가 고맙다. “고향에는 그가 돌아 올 날만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지만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 지배하의 그 기억은 해방 후 40년이 지나 망각의 늪에 빠져 버렸다. 전후 40년 동안 타국의 산속에 묻힌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본인이 몇 명이나 될까”(『귀향』_131).

2) 망자에게 보낸 편지가 만든 나비효과

저자는 일본을 고발한다.

전후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식민지배를 통한 가해의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이 억압받아 왔다. 아시아 전쟁 피해국과 우호 관계를 맺을 필요 없이 미국과 동맹해 반공의 방파제라는 명분으로 시대를 넘겨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 1965년 국교를 회복할 때 ... 정치적인 방법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한 일본 정부는 상대국 국민과 피해자에게 전혀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한일조약이 체결될 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차원의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은 독립축하금, 경제협력금이라는 명목에서였을 뿐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없었다(『귀향』_135-136).

1982년 10월 4일 저자와 미야카와가 한국의 유족을 찾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같은 해 3월 한국에서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난 해다. 한일 관계는 교과서 문제의 여파로 긴장 관계였다. 일본을 방문해서 유족 찾는 데 도움을 약속했던 효란 스님의 주선으로 저자를 포함한 일행이 천안, 대구를 거쳐가며 답신을 보낸 유족들을 찾아 나섰다(『귀향』_176-183). 저자가 이 여정 중 경북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다.

다들 산속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지. 눈에 띌면 끌려갔으니 말이야. 이 마을에서 네댓 명은 홋카이도와 사할린으로 끌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젊은 남자는 모두 당했어. 밭에서 갑자기 끌려간 사람도 있다네(『귀향』_187).

1992년 2월 28일 홋카이도에서 유골 봉환단 15명이 대한항공 여객기로 치토세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자는 시민의 손으로 화해의 시험대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언제가 반드시 책임을 자각하고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유족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는 별개로 일본 시민과 종교인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 시민의 손으로 화해의 시험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골 봉환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귀향』_209-214).

망자에게 보낸 편지가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유골 문제가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과제로 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을 반환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다.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정부 수준에서 강제 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가 정식의제로 논의된 것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홋카이도 포럼’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의 역할이 컸다. 한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나시고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외무성, 내각관방 3자가 모여 유골 문제 창구를 만들고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귀향』 259-262). 그 사이 전후 5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후 한일 정부 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다.

5. 홋카이도에 합장된 채 남겨진 유골

삿포로 별원은 1879년 정토진중 본원사파의 홋카이도 개척 거점으로 창립했다. 저자는 이 교단에 소속된 정토진중 본원사파 승려다. 1962년 삿포로시 주오구에 새로운 토지를 구해 근대적 본당을 신축했고, 별원은 해체되었다. 1969년 봉안당 전용의 작은 호리병에 바뀌 넣어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 병이 작아서 강제연행 희생자 유골 101구 중 일부 유골이 남았고, 이 유골이 합쳐졌다. 약 30년 후인 1997년 이 유골을 관리하던 자키공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자키공업 총무부 부부장과 별원 부(副)

림방⁴⁾이 합의하여 50년 전에 맡겨진 유골의 합장을 결정했다. 정작 유족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귀향』_242). 유골을 찾기 위해 일본을 찾은 유족들 중 작은 아버지의 유골을 모셔가기 위해 온 조카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를 받아서 고향에 모셔가도 다른 사람의 유골이 섞여 있는 것이라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곤혹스럽습니다.”(『귀향』_251)

유족의 동의 없이 합장된 유골은 유골이 되고 나서도 다시 모멸 당했다. 가슴이 먹먹하다. 다른 유족의 고향에서는 이미 모실 묘를 만들고 유골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골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합장된 유골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찾을 길은 없었다. 결국 한 유족은 부친이 일했던 장소의 흙을 함께 받는 조건으로 합장된 유골의 일부를 받아 묘에 매장하는 길을 택했다(『귀향』_304-305). 기록에 따르면, 삿포로 별원에 남겨지고 합장된 유골에는 한국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남한 출신 유골이 61구, 북한 출신 유골이 13구, 본적 불명 유골이 11구였다. 중국인 유골이 6구, 일본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10구다(『귀향』_258-259). 동아시아를 관통한 비극이 합장된 유골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02년 11월 22일 『홋카이도』 신문이 머리기사로 “강제연행 조선인 유골 101구 삿포로 절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면서 별원에 있는 유골의 합장 문제가 드러났다. 삿포로 별원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

4) 림방(輪番)은 절의 주지 역할을 대신하는 총책임자이다. 별원은 본원사의 출장소 성격으로 설치된 것이기에 법률상 교단의 총정이 주지를 역임한다(『귀향』_239).

끝을 맺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죄했다. 기자회견에는 민단과 조총련, 삿포로향토발굴회, 소라치 민중사강좌, 역사연구자, 목사, 승려,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2003년 2월 ‘홋카이도 포럼’이 만들어졌다(『귀향』_246-247).

6. 맺으며

망자는 이미 육체적 삶을 마감했지만 살아 있는 사람과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죽음이나에 따라서 더 많은 사연들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전해진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망자의 목소리는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와 한반도 현대사의 아픈 과거와 결부되어 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지연된 이행기 정의의 과제를 안고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만큼 망자들이 전하는 사연에는 더 많은 사연들이 엉겨 있다. 2005년 5월 8일 진상규명위원회 주선으로 유족들이 홋카이도를 방문했을 때 광소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홋카이도까지 머나먼 길을 밥은 먹으면서 왔을까.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있었을까. 15세 어린애에게 무엇을 시켰을까. 알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귀향』_270).

아직도 남겨져 있는 어떤 유골함에는 유골과 함께 미지급 임금 명세서와 수첩, 도장, 부의금 등의 유품이 들어 있다(『귀향』_264). 유골의 존재를 확인한 유족들이 일본까지 찾아와 어렵게 만난 육친의 유골을 모시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일본 정부나 기업이 책임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골만 가지고 돌아갔을 때 사죄와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갈등했다. 이것이 지연된 정의의 현주소다.



〈사진 4〉 조선인 희생자 위패
(©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

비록 일부였지만 115명 망자들의 귀향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115구를 안치할 장소로 한국 유족은 천안 외곽에 있는 국립묘지 망향의 동산을 택해 샛포로 한국총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망향의 동산에 유족이 판명되지 않은 유골과 합장된 유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해왔다. 부득이 안치 장소를 변경해야만 했다. 이 유골은 2015년 9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거친 후 20일 경기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역사의 망각을 조금이나마 거두어내는 일이 가능했다. 정병호 교수, 명진 스님, 고 박원순 시장, 고 리영희 선생님, 고 채만진 선생님, 저자 요시히코, 홋카이도 포럼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



〈사진 5〉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70년 만의 귀향' 묘역 (© 지상)

안타깝게도 슈마리나에서 희생된 일본인 다코베야 노동 희생자,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의 위패와 유골을 안치해 온 사사노보호 전시관(구 광현사)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2020년 1월 폭설로 무너졌다. 광현사의 도움을 받아 전시관으로 활용해 온 이 장소는 1995년부터 강제노동자 묘관으로 동아시아공동위크숍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다 시금 이 전시관을 복구하기 위해 3,000만 엔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무너진 전시관 사진과 함께 책 말미에 적혀 있다. 이 책을 읽은 한국의 한 독지가가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감사할 일이다.

『70년 만의 귀향』은 원래 일본어판으로 2013년 『유골』로 출판되었고,

일본에서는 벌써 절판되었다. 저자의 친구이자 발굴 계획의 동지인 지상 스님이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다. 한국어판 출간을 위해 2013년 이후 진행된 70년 만의 귀향 등의 내용이 이 책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역사의 망각을 거두어 내는 인간애의 실천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애쓰신 지상 스님께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XXXX~~

참고문헌

도노히라 요시히코. 2021. 『70년 만의 귀향』. 서울: 후마니타스.

나카츠카 아키라 외. 2014.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한혜인 옮김. 서울: 모시는 사람들.

나카츠카 아키라. 2014.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박맹수 옮김. 서울: 푸른역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이우연. 2019. “과연 ‘강제노동’·‘노예노동’이었나?” 이영훈 외. 『반일종족주의』. 서울: 미래사.